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17호

2024년 10월

외모 관리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행 2:25-47)	전 준 덕	3
에베소서 읽기(6)	손 현 섭	20
바울 사도 소전(小傳)7	최 정 일	27
감사하라 하나님께 그 은혜 영원까지	한 정 주	42
예수전(201)	김 형 철 역	52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58
주기도문	최 제 현	60
2024 가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	편 집 실	71

성서신애사

외모 관리

매일 다니는 탁구장 시니어부 회원들 사이에 요즘 외모 관리가 한창이다. 점과 검버섯을 없애고 눈썹도 또렷하게 문신을 한다. 이 이야기를 우연히 아내와 하게 되었는데, ‘말 잘 했어요’ 하더니 내 눈 아래 볼록한 점을 가리키며 피부과에 가자고 성화를 했다.

사실 그 점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상하다고 여겼던 터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병원에 갔다. 그런데 그게 사마귀라 하여 즉시 레이저로 제거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계수기가 찰칵찰칵 계속 울리더니 무려 75개라는 거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밴드가 덕지덕지 붙었고, 부어오르기까지 하여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간 외출도 삼가고, 병원에 다니느라 곤욕을 치렀다.

우리 세대까지도 이렇게 외모를 관리하게 된 건, 젊게 살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노인에게 불친절한 세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 전 논란이 된 기사인데, 한 노인이 카페에 앉아 있다가 직원으로부터 젊은이들이 꺼려하니 얼른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는 카페나 식당에 갈 때도 외모 관리가 필수인 걸까,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젊은이의 외모를 유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분들과 달리, 나는 점점 서툴고 느려지는 사회적 약자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나이, 즉 지혜도 사라지고 육체도 무력해지는 이 노년기야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때가 아닐까 한다(손현섭).

(아, 그리고 피부과 다녀왔지만 저의 외모는 ‘아무런 변화없음’입니다. 괜히 고생만 했습니다.)

신약성서 번역본

(사도행전 2:25-47)

전 준 덕

25절 : Δαβιδ(Δαυιδ) γὰρ λέγει εἰς αὐτόν, προωρώμην(προορώμη
ν) τὸν κύριον ἐνώπιόν μου διὰ παντός, ὅτι ἐκ δεξιῶν μου ἐστίν, ἵ
να μὴ σαλευθῶ.

사역 : 다비드왕이 그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오른편에
계셨기 때문이오.

주) 1. προωρώμην : προοράω(πρό+ορά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미리보다, 내다보다, (중) 앞에서 보다, 목전에 나타나다, 마음으로 보다)
라는 동사의 미완, 중(수), 직설, 단, 1인칭.

2. κύριον : κύριος의 단, 대격. (1:6)

3. ἐνώπιον(부) (부사이나 전치사처럼 소유격을 지배함) : (앞에, 전에,
면전에, ~의 생각에, ~보기에, 가운데, ~위하여, 권위로)

4. διὰ παντός : (언제나, 계속적으로, 꾸준히)의 속어.

5. δεξιῶν : δεξιός(오른쪽의 오른편의, 오른손의 = 주로 명사와 함께
사용함)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 복, 소유격.

6. ἵνα(접) (항상 가정법 동사와 함께 사용함) : ~하기 위하여, ~하는
것, ~되기 위해)

7. σαλευθῶ : σαλεύω(흔들다, 움직이게 하다, 비틀거리다, 요동케 하
다, 선동하다, 뒤엎다, 넘어지다, 요동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가정,
단, 1인칭.

26절 : διὰ τοῦτο εὐφράνθη(ηὐφράνθη) ἡ καρδιά μου καὶ ἠγαλλιάσατο ἡ γλῶσσά μου· ἔτι δὲ καὶ ἡ σάρξ μου κατασκηνώσει ἐπ' ἐλπίδι·

사역 :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입술은 기뻐 찬양하였으며, 내 육체까지도 역시 희망으로 살 수 있었소

주) 1. διὰ τοῦτο : (그러므로, 그래서, 이러므로, 이래서)의 속어.

2. εὐφράνθη : εὐφραίνω(εὐ+φραί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즐겁게 하다, 격려하다 (수)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중) 기뻐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3. καρδιά : (마음, 내부, 속, 중심, 양심, 가운데)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주격.

4. ἠγαλλιάσατο : ἀγαλλιᾶω(단축동사, (찬양하다, 축하하다,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좋아 죽을 지경이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 직설, 단, 3인칭.

5. ἔτι δὲ καί : (~도 또한)의 속어.

6. κατασκηνώσει : κατασκηνόω(κατά+σκηνό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천막치다, 정착하다, 살다, 쉬다, 거주하다, (타) 살게하다)라는 동사의 미, 능동, 직설, 단, 3인칭.

7. ἐλπίδι : ἐλπίς(희망, 소망, 원함, 바람, 기대, 전망, 신뢰, 바라는 것)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27절 : ὅτι οὐκ ἐγκαταλείψεις τὴν ψυχὴν μου εἰς ἄδου,(ἄδην,) οὐ δὲ δώσεις τὸν ὅσιόν σου ἰδεῖν διαφθοράν,

사역 : 당신은 내 영혼을 지옥으로 버리지 않을 것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 당하지 않도록 넘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 1. ἐγκαταλείψεις : ἐγκαταλείπω(έν+καταλείπω=κατά+λείπω의 이중 합성동사)(버리다, 내버리다, 포기하다, 남기다, 머물게 하다)라는 동사의 미, 능동, 직설, 단, 2인칭.

2. ψυχὴν : ψυχή(영혼, 생명, 목숨, 혼)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3. ὁδοῦ : ὁδός(처벌받는 곳, 하계, 지옥, 지하의 세계, 죽음)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4. οὐδέ(부)(οὐ+δέ의 합성어) : (그리고 ~아니, 또 ~아니, 역시~아니, 까지도 ~아니)

5. δώσεις : δίδωμι의 미, 능동, 직설, 단, 2인칭. (1:26)

6. ὅσιον : ὅσιος(경건한, 거룩한, 신성한, 순정한, 때문지 않는)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대격.

7. σου : σύ(인칭, 대, 2인칭)의 비 강조형(너의, 당신의)

8. ἰδεῖν : ὁράω(단축동사)의 제2과, 능동, 부정사. (2:3)

9. διαφθοράν : διαφθορά(διά+φθορά의 합성어) (파멸, 부패, 썩음, 멸망)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28절 : ἐγνώρισάς μοι ὁδοὺς ζωῆς· πληρώσεις με εὐφροσύνης μετὰ τοῦ προσώπου σου.

사역 : 당신은 내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셨으며 당신은 나를 당신 앞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셨도다.

주) 1. ἐγνώρισας : γνωρίζω(알리다, 알게하다, 나타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2인칭.

2. ὁδοῦς : ὁδός의 복, 대격. (1:12)

3. ζωῆς : ζωή(생명, 생활, 살아있는 존재)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

성명사의 단, 소유격.

4. πληρώσεις : πληρώ(단축동사)의 미, 능동, 직설, 단, 2인칭.
(1:16)

5. εὐφροσύνης : εὐφροσύνη(기쁨, 즐거움, 유쾌)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6. προσώπου : πρόσωπον(πρός+ὤφ의 합성어) (얼굴, 외모, 용모, 외부, 사람, 인간, 직업)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7. μετὰ τοῦ προσώπου : (앞에서)의 속어.

29절 : Ἄνδρες ἀδελφοί, ἐξὸν εἰπεῖν μετὰ παρόρησίας πρὸς ὑμᾶς περὶ τὸν πατριάρχου Δαβίδ, (Δαυΐδ) ὅτι καὶ ἐτελεύτησεν καὶ ἐτάφη, καὶ τὸ μνήμα αὐτοῦ ἔστιν ἐν ἡμῖν ἄχρι τῆς ἡμέρας ταύτης.

사역 :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다비드 조상에 대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 말하는 것은 마땅하오. 그분은 죽어 장사 되었기에 그의 무덤은 이날까지(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잘 보존되어 있소이다.

주) 1. ἄνδρες : ἀνήρ의 복, 주(호)격. 본절은 호격. (1:10)

2. ἀδελφοί : ἀδελφός의 복, 주(호)격. 본절은 호격. (1:14)

3. ἐξὸν : ἔξεστιν(가능하다, 허용되다, 합당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중, 단, 주(대)격(본절은 주격).

4. εἰπεῖν : λέγω의 제2과, 능동, 부정사. (1:3)

5. παρόρησίας : παρόρησια(παῖς+ρήσια의 합성어) (대담한 말, 숨김없음, 솔직, 명백, 자신, 확신, 담대, 대담, 두려움이 없음, (부사) : 대담하게, 자신 있게, 공공연하게, 내놓고)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6. μετὰ παρόρησίας : (분명히, 확실히, 노골적으로)의 속어.

7. περί(전)(대격지배) : (주위에, 근처, 두루, 주위, 둘레에, 가까운, (시간) : 경, 쯤, 약, 대하여, ~으로, 가지고, ~에, ~에 대한, ~에 관한)

8. πατριάρχου : πατριάρχης(πατριά+ἀρχή의 합성어) (족장, 한 나라의 조상, 한 일가의 시조)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9. ἐτελεύτησεν : τελευτάω(단축동사) (마치다,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 끝에 이르다, 종국에 도달하다, 죽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0. ἐτάφη : θάπτω(매장하다, 묻다, 장사하다) 라는 동사의 제2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11. μνημα : (기념, 기념비, 기념의 표, 무덤)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격(본절은 주격).

30절 : προφήτης οὗν ὑπάρχων, καὶ εἰδὼς ὅτι ὄρκῳ ὤμοσεν αὐτῷ ὁ θεός, ἐκ καρποῦ τῆς ὀσφύος αὐτοῦ τὸ κατὰ σάρκα ἀναστήσειν τὸν χριστόν, καθίσει ἐπὶ τοῦ θρόνου(τὸν θρόνον) αὐτοῦ,

사역 :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시기를 그의 자손 중에서 육신을 따라 크리토스를 세우신다는 것과, 그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주) 1. ὑπάρχων : ὑπάρχω(ὑπό+ἄρχω의 합성동사)(시작하다, 실재하다, 존재하다, 있다, 뜻대로 되다, 예측하다) 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단, 주격.

2. εἰδὼς : οἶδα의 완료, 능동, 분, 남, 단, 주격(2:22).

3. ὄρκῳ : ὄρκος(맹세, 서약, 약속)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여격.

4. ὤμοσεν : ὁμνυμι(맹세하다, 서약하다, 약속하다)라는 ~μι동사의 제1

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5. καρποῦ : καρπός(열매, 과일, 실과, 결실, 결과, 산물, 수확, 농작물, 후손, 자식, 행동, 상금, 이득, 유익)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6. ὀσφύος : ὀσφύς(허리)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7. ἐκ καρποῦ τῆς ὀσφύος αὐτοῦ : (그의 자손 중에)의 속어.

8. ἀναστήσειν : ἀνίστημι(ἀνά+ϊστημι의 합성동사)의 미, 능동, 부정사. (1:15)

9. καθίσαι : καθίζω의 제1과, 능동, 부정사. (2:3)

10. θρόνου : θρόνος(왕자, 옥좌, 보좌)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31절 : προῖδὼν ἐλάλησεν περὶ τῆς ἀναστάσεως τοῦ χριστοῦ, ὅτι οὐ κατελείφθη ἡ ψυχὴ αὐτοῦ(οὔτε ἐνκατελείφθη) εἰς ᾧδου.(ᾧδον) οὐδὲ(ούτῃ) ἡ σὰρξ αὐτοῦ εἶδεν διαφθοράν.

사역 : 미리 앞을 내다보고 크리스토스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였소.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그의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 하였소.

주) 1. προῖδὼν : προοράω(πρό+όρά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제2과, 능동, 분, 남, 단, 주격(2:25).

2. ἐλάλησεν : λα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2:4)

3. κατελείφθη : καταλείπω(κατά+λείπω의 합성동사) (남겨놓다, 버리고 가다, 두고 가다, 남기다, 버려두다, 떠나다, 소홀히 하다, 혼자 버려

두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4. εἶδεν : ὁράω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2:3)

32절 : τοῦτον τὸν Ἰησοῦν ἀνέστησεν ὁ θεός οὗ πάντες ἡμεῖς ἔσμεν μάρτυρες.

사역 : 우리 모두가 증인인바 하나님께서 이 예수스님을 살리셨도다.

주) 1. ἔσμεν : εἰμί의 현, 직설, 복, 1인칭. (1:1)

33절 : τῇ δεξιᾷ οὖν τοῦ θεοῦ ὑψωθείς, τὴν τε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τοῦ, ἁγίου) λαβὼν παρὰ τοῦ πατρός, ἐξέχεεν τοῦτο ὃ ὑῖν ὑμεῖς(καὶ) βλέπετε καὶ ἀκούετε.

사역 :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드높이시매 성령의 약속하심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소.

주) 1. δεξιᾷ : δεξιός의 여, 단, 여격. (2:25)

2. ὑψωθείς : ὑψόω(단축동사) (높이 올리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분, 남, 단, 주격.

3. ἐπαγγελίαν : ἐπαγγελία(ἐπί+ἀγγελία의 합성어)의 단, 대격. (1:4)

4. λαβὼν : λαμβάνω의 제2과, 능동, 분, 남, 단, 주격. (1:8)

5. παρὰ(전) (속격, 여격, 내격, 지배함) (본절은 속격 지배함) : (~에게서, ~에게서부터, ~에 의하여, ~에 의해서 만들어진)

6. ἐξέχεεν : ἐκχέω(ἐκ+χ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18)

7. νῦν(부) : (지금, 이제, 현재)

8. βλέπετε : βλέπω의 현, 능동, 직설, 복, 2인칭. (1:9)

9. ἀκούετε : ἀκούω의 현, 능동, 직설, 복, 2인칭. (1:4)

34절 : οὐ γὰρ Δαβὶδ(Δαυὶδ) ἀνέβη εἰς τοὺς οὐρανοὺς, λέγει δὲ αὐτός, Εἶπεν ὁ Κύριος τῷ Κυρίῳ μου, Κάθου ἐκ δεξιῶν μου.

사역 : 그렇지만 다비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소. 그러나 그 자신이 말하였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 1. ἀνέβη : ἀναβαίνω(ἀνά+βαίνω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13)

2. οὐρανοὺς : οὐρανός의 복, 대격. (1:10)

3. κυρίῳ : κύριος의 단, 여격. (1:6)

4. κάθου : κάθημαι의 현, 중(수), 명령, 단, 2인칭. (2:2)

35절 : ἕως ἄν θῶ τοὺς ἐχθρούς σου ὑποπόδιον τῶν ποδῶν σου.

사역 :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소.

*34-35절은 한 문장이다. 다시 사역하면

“그렇지만 다비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소. 그러나 그 자신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이다”

주) 1. θῶ : τίθημι의 제2과, 능동, 가정, 단, 1인칭. (1:7)

2. ἐχθρούς : ἐχθρός(적의 있는, 적개심이 있는, 미워하는 (명) 원수)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대격.

3. ὑποπόδιον(ὑπό+πούς의 합성어) : (발판, 발등상)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주(대)격. (본질은 대격)

4. ποδῶν : πούς(발)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소유격.

36절 : Ἀσφαλῶς οὖν γινωσκέτω πᾶς οἶκος Ἰσραήλ, ὅτι καὶ κύριον(αὐτὸν) καὶ Χριστὸν αὐτὸν(ἐποίησεν) ὁ θεὸς ἐποίησεν, τοῦτον τὸν Ἰησοῦν ὃν ὑμεῖς ἐσταυρώσατε.

사역 :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가정이 확실히 알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분을 주와 크리스토스를 되게 하였소.

주) 1. ἀσφαλῶς(부) : (안전하게, 확실히, 틀림없이)

2. γινωσκέτω : γινώσκω의 현, 능동, 명령, 단, 3인칭. (1:7)

3. ἐσταυρώσατε : σταυρόω(단축동사) (십자가에 못 박다, 십자가형에 처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2인칭.

37절 : Ἀκούσαντες δὲ κατενύγησαν τῇ καρδίᾳ, (τὴν καρδίαν,) εἰπὸν τε πρὸς τὸν Πέτρον καὶ τοὺς λοιποὺς ἀποστόλους, Τί ποιήσομεν,(ποιήσωμεν,) ἄνδρες ἀδελφοί:

사역 : 그러자 저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합당함을 깨닫고 페트로스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이까?’

주) 1. ἀκούσαντες : ἀκούω의 제1과, 능동, 분, 남, 복, 주격. (1:4)

2. κατενύγησαν : κατενύσσω(κατά+νύσσω의 합성동사) (가치가 있

다고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동사의 제2과 수동, 직설, 복, 3인칭.

3. καρδία : καρδία의 단, 여격(2:26).

4. λοιπούς : λοιπός(남은, 남겨진, 나머지, 다른(부사)) : 이후로는, 앞으로는, 장래에는, 마지막으로)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대격.

5. ἀποστόλους : ἀπόστολος의 복, 대격. (1:26)

6. ποιήσομεν : ποιέω(단축동사)의 미, 능동, 직설, 복, 1인칭. (1:1)

38절 : Πέτρος δὲ ἔφη πρὸς αὐτοὺς, Μετανοήσατε, (φησίν,) καὶ βαπτισθήτω ἕκαστος ὑμῶν ἐπὶ τῷ ὀνόματι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εἰς ἄφεσιν(τῶν) ἁμαρτιῶν, (ὑμῶν,) καὶ λήψεσθε(λήμψεσθε) τὴν δωρεὰν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사역 : 그러자 페트로스가 저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 1. ἔφη : φημί(말하다, 이야기하다, 언명하다, 단언하다, 확인하다)라는 ~μί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2. μετανοήσατε : μετανοέω(μετά+νο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마음을 고치다, 뉘우치다, 바꾸다, 개혁하다, 회개하다, 돌아서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명령, 복, 2인칭.

3. βαπτισθήτω : βαπτίζω의 제1과, 수동, 명령, 단, 3인칭. (1:5)

4. ὀνόματι : ὄνομα의 단, 여격. (1:15)

5. ἄφεσιν : ἄφεσις(용서, 해방, 탕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6. ἁμαρτιῶν : ἁμαρτία(범죄, 빛나감, 잘못, 악행)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소유격.

7. λήψεσθε : λαμβάνω(비음동사)의 미, 중간, 직설, 복, 2인칭. (1:8)

8. δωρεάν : δωρεά(선물, 하사품, 선사품, 예물, 봉헌물)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39절 : ὑμῖν γὰρ ἐστὶν ἡ ἐπαγγελία καὶ τοῖς τέκνοις ὑμῶν, καὶ παῶσιν τοῖς εἰς μακράν, ὅσους ἂν προσκαλέσῃται κύριος ὁ θεὸς ἡμῶν.

사역 : 그러므로 그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두 초대할 것이요.

주) 1. τέκνοις : τέκνον(아이, 어린이, 자녀, 자손, 후손,)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여격.

2. μακράν(부)(전치사처럼 소유격 지배함) : (먼, 멀리, ~에서 먼, ~에서 멀리 떨어진)

3. ὅσους : ὅσος(~만큼 많은, ~만큼 큰, ~만큼 긴, ~만큼 긴, 얼마나 먼, 얼마나 많은, 모두)의 남, 복, 대격.

4. προσκαλέσῃται : προσκαλέομαι(πρός+καλέω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호출하다, 소환하다, 부르다, 소집하다, 초대하다)라는 dep 동사의 제1과, 중간, 가정, 단, 3인칭.

40절 : Ἐτέροις τε λόγοις πλείοσιν διεμαρτύρετο(διεμαρτύρατο) καὶ παρεκάλει(αὐτοὺς) λέγων, Σώθητε ἀπὸ τῆς γενεᾶς τῆς σκολιᾶς ταύτης.

사역 :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며 권면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은 불의한 이 시대로부터 구원함을 받으시오.

주) 1. ἑτέροις : ἕτερος의 남, 복, 여격. (1:20)

2. λόγοις : λόγος의 복, 여격. (1:1)

3. πλείοσιν : πλείων(더 많은, 더 큰, 더 높은, 더 귀한, 더 오랜, 대다수, 대부분(부) 더, 더욱더, 더 많이)의 남, 복, 여격.

4. διεμαρτύρετο : διεμαρτύρομαι(δαε+μαρτύρομαι의 합성동사) (명하다, 경고하다, 증거하다, 확언하다)라는 dep 동사의 미완, 중(수), 직설, 단, 3인칭.

5. παρεκάλει : παρακαλέω(παρά+καλ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결으로 부르다, 호출하다, 소집하다, 권하다, 청하다, 이끌다, 호소하다, 강권하다, 역설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 요구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다정히 말하다)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단, 3인칭.

6. σώθητε : σώζω의 제1과, 수동, 명령, 복, 2인칭. (2:21)

7. γενεᾷς : γενεά(자손, 가문, 종족, 종류, 시대, 민족)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8. σκολιᾷς : σκολιός(굳은, 굳어진, 비뚤어진, 무법한, 파렴치한, 무정한, 불의한, 정직하지 못한, 구부러진)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단, 소유격.

41절 : Οἱ μὲν οὖν ἁσμένως ἀποδεξάμενοι τὸν λόγον αὐτοῦ ἐβαπίσθησαν· καὶ προσετέθησαν(έν) τῇ ἡμέρᾳ ἐκείνῃ ψυχαὶ ὥσεϊ τρισίλιναι.

사역 : 그래서 그의(페도로스)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략 삼천 명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주) 1. ἁσμένως(부) : (기쁘게, 즐겁게)

2. ἀποδεξάμενοι : ἀποδέχομαι(ἀπό+δέχομαι의 합성동사) (영접하다, 환영하다, 접대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알아주다, 칭찬하다)라는 dep동사의 제1과, 중간, 분, 남, 복, 주격.

3. ἐβαπίσθησαν : βαπτίζω의 제1과, 수동, 직설, 복, 3인칭. (1:5)

4. προσετέθησαν : προστίθημι(πρός+τίθημι의 합성동사) (더하다, 가하다, 참가하다, 합하다, 공급하다, 주다, 하다)라는 ~μι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복, 3인칭.

5. ψυχαί : ψυχή의 복, 주격. (2:27)

6. τρισίλιναι : τρισίλιον(τρίς+λίον의 합성어) (삼천)의 여, 복, 주격.

42절 : Ἦσαν δὲ προσκατεροῦντες τῇ διδαχῇ τῶν ἀποστόλων καὶ τῇ κοινωνίᾳ καὶ 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καὶ ταῖς προσευχαῖς.

사역 : 이제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대해서) 전념을 다하여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주) 1. προσκατεροῦντες : προσκατερέω(πρός+κατερ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1:14)

2. διδαχῇ : διδαχή(가르침, 교훈,)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3. κοινωνία : κοινωνία(합동, 교제, 친교, 밀접한 관계, 동정, 구제, 선물, 기부금, 참여, 나눔)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4. κλάσει : κλάσις(떼어냄, 쪼갬, 떼는 일, 떡을 뺌)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5. ἄρτου : ἄρτος(빵, 떡, 음식, 양식)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6. προσευχαῖς : προσευχή(πρός+εὐχή의 합성어)의 복, 여격. (1:14)

43절 : ἐγένετο(ἐγίνετο) δὲ πάσῃ ψυχῇ φόβος, πολλὰ τε τέρατα καὶ σημεῖα διὰ τῶν ἀποστόλων ἐγίνετο.

사역 :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표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 1. φόβος : (무서운 일, 무섭게 하는 것, (수) 두려움, 놀라움, 공포심, 경외, 존경, 공경)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주격.

2. πολλὰ : πολὺς의 중, 복, 주(대)격. (본절은 주격) (1:3)

3. ἐγίνετο : γίνομαι의 미완, 중(수), 직설, 단, 3인칭. (1:16)

44절 : πάντες δὲ οἱ πιστεύοντες ἦσαν ἐπὶ τὸ αὐτὸ καὶ εἶχον ἅπαντα κοινά,

사역 : 그런데 믿는(형제들이)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용하고 있었습니다.

주) 1. πιστεύοντες : πιστεύω(믿다, 신용하다, 확신하다. (여격 지배) : 신앙하다, 신뢰하다, 믿다, 맡기다, 위탁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2. εἶχον : ἔχω의 미완, 능동, 직설, 단, 1인칭 및 복, 3인칭(본절은 복, 3인칭). (1:12)

3. ἅπαντα : ἅπας의 중성, 복, 주(대)격. (본절은 대격) (2:1)

4. κοινά : κοινός(일반적인, 공통적인, 공공의, 공중의, 평범한, 보통의, 불결한, 더러운, 깨끗지 않은)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 복, 주(대)격. (본절은 대격)

5. ἐπὶ τὸ αὐτό : (같은 장소에, 다같이, ~에, 곁에)의 속어.

45절 : καὶ τὰ κτήματα καὶ τὰς ὑπάρξεις ἐπίπρασκον, καὶ διεμέριζον αὐτὰ πᾶσι, καθότι ἂν τις χρεῖαν εἶχεν.

사역 : 또한 저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을(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주) 1. κτήματα : κτήμα(소유, 재산, 토지, 땅, 밭)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주(대)격. (본절은 대격)

2. τάς : ὁ의 여, 복, 대격(1:1).

3. ὑπάρξεις : ὑπαρξεις(ὑπό+ἄρξεις의 합성어) (존재, 있는 것, 소유한 것, 재산)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 대격.

4. ἐπίπρασκον : πιπράσκω(팔다 (수) 팔리우다, 노예가 되다) 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

5. διεμέριζον : διαμερίζω(δία+μερίζω의 합성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 (2:3)

6. αὐτὰ : αὐτός(인칭, 대의 3인칭)의 중, 복, 주(대)격. (본절은 대격) (1:3)

7. χρεῖαν : χρεῖα(필요, 필요성, 소용, 빈곤, 부족, 결핍, 빈궁, 곤란, 결여, 직무, 의무, 봉사)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8. εἶχεν : ἔχω의 미완, 능동, 직설, 단, 3인칭. (1:12)

46절 : καθ' ἡμέραν τε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ὁμοθυμαδὸν ἐν τῷ ἱερῷ, κλῶντες τε κατ' οἶκον ἄρτον, μετελάμβανον τροφῆς ἐν ἀγαλλιάσει καὶ ἀφελότητι καρδίας,

사역 : 그리고 매일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꾸준히 지속하였고, 가정마다 떡을 떼며, 큰 기쁨과 소박한 마음으로 음식을(감사히) 먹으며,

- 주) 1. καθ' ἡμέραν : (날마다, 매일)의 속어.
 2.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 (1:14)
 3. ὁμοθυμαδόν : (2:1)
 4. κλώντες : κλάω(단축동사) (떼다, 쪼개다, 깨뜨리다, 떡을 떼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5. κατ' οἶκον : (집집마다, 가정마다)의 속어.
 6. μετελάβανον : μεταλαμβάνω(μετά+λαμβάνω의 합성동사) (자기 몫을 받다, 한 몫끼다, 받다, 얻다, 찾다, 먹다)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복, 3인칭(단, 1인칭도 됨)
 7. τροφῆς : τροφή(음식물, 양식, 영양, 자양)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8. ἀγαλλιάσει : ἀγαλλίασις(환희, 큰 기쁨, 넘치는 기쁨)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9. ἀφελότητι : ἀφελότης(ἀπό+ἐλότης의 합성어) (단순, 순진, 소박)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47절 : αἰνοῦντες τὸν θεόν, καὶ ἔχοντες χάριν πρὸς ὅλον τὸν λαόν. ὁ δὲ Κύριος προσετίθει τοὺς σωζομένους καθ' ἡμέραν τῇ ἐκκλησίᾳ.

사역 :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로 더해주고 계십니다.

- 주) 1. αἰνοῦντες : αἰνέω(단축동사)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2. ἔχοντες : ἔχω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1:12)

3. χάριν : χάρις(우아함, 매력, 끄는 힘, 아름다움, 은총, 은혜, 은사, 호의, 총애, 은덕, 선의, 행위, 선물, 감사, 자선, 은혜로운 행동)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4. λαόν : λαός(백성, 대중, 군중, 민중)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5. προσετίθει : προστίθηναι(πρός+τίθηναι의 합성동사)라는 ~μι동사의 미완, 능동, 직설, 단, 3인칭(2:41).

6. σωζομένους : σώζω의 현, 중(수), 분, 남, 복, 대격. (2:21)

7. καθ' ἡμέραν : (날마다, 매일)의 속어.

【9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표지	(행2:1-10)	(행2:1-24)
10쪽2줄	πλήθω(채우다, 성취하다	πλήθω(채우다, 성취하다
10쪽15줄	Ἱερουσαλήμ	Ἱερουσαλήμ
10쪽21줄	(εὖ+λαμβάνω의 합성어)	(εὖ+λαμβάνω의 합성어)
11쪽9줄	6. καθώς	6. καθώς
11쪽13줄	백성, 인민, 교제,	백성, 인민, 교제,
11쪽15줄	(σύν+ἔχω의 합성동사)	(σύν+ἔχω의 합성동사)
15쪽15줄	(έν+ώτιζομαι의 합성동)	(έν+ώτιζομαι의 합성동사)
22쪽6줄	ἀναιέω	ἀναιρέω
22쪽18줄	ώσιν	ώδιν

에베소서 읽기(6)

(아들로 받아들여짐)

손 현 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1. 들어가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선택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5절은 그 선택이라는 개념을 더 확실하게 알려준다.

바울 사도는 신생 에클레시아인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신자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고자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모든 하늘의 영적인 복을 아낌없이 주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이 말을 한 후, 말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라고 미완성인 채로 4절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예정에 대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다.

2. 본문 살피기

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디아} ^{이예수} ^{크리스투스} ^{에이스} ^{아우톤} $\delta\iota\alpha\ \eta\theta\sigma\upsilon\ \chi\rho\iota\sigma\tau\acute{o}\upsilon\ \epsilon\iota\varsigma\ \alpha\upsilon\tau\acute{o}\nu$)’인데, 영어로는 간략하게 in Christ(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다. 이 구문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등과 같이 약간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에베소서의 짧은 편지 속에 30번 이상 등장한다.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 번이나 나올 정도로 많이 언급한다.

사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서의 큰 주제가 아니겠는가. 실로 그리스도교의 진수라 할 만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 직접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신다고 할 수 있다. 정의의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직접 접하신다면, 우리는 정의의 불꽃에 타버릴 존재라 하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떤 사람보다 가까운 분으로 느끼며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그의 아들에게 있던 영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당연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가능하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사셨다. 이 땅에 살았던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고, 핍박과 시험도 받았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이란 당연히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성령의 활동이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 주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도와준다. 참으로 쓰카모토 선생이 말한 대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2천 년 전의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분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의 본문에 앞서 4절 끝부분에서 일부러 공언하고 있다.

2) 기뻐하신 뜻을 따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창조하였고, 사람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니 매우 아름답고 선하였다. 이 창세에 관한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한 의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조명한 선생도 에베소서 공부에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중요시하여, 리더보스(Ridderbos, 1975:197)라는 학자의 해석을 특별히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지가 곧 베푸시는 선한 기쁨심이다. 이 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뜻대로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행사하심이 선한 기쁨심이다. 이 선한 기쁨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 5:20)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밀이라기보다 어쩌면 신비라고 하는 편이 더 옳은 해석일 것이다.”¹⁾

3)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심

바울은 앞 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였다”고 말한다.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정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하였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즉 “창세 전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얼마를 자녀가 되도록 예정한 것이다.

이 선택과 예정은 에베소서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 3절에서 “찬송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왜 찬송해야 하는가? 우리를, 아니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 일은 앞으로 볼 11절에서 또 반복되어 나오게 된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다. 사도행전²⁾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또 로마서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예정이라는 개념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도 하고 놀라게도 한다. 오래 신앙을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를 알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니 그것 또한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나 자신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결국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으려

1) 조명한 저 에베소서의 이해 42-43

2) 사도행전 13장 48절

3) 로마서 8장 28절

고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또 자신이 구원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에게 잡혔던 것이 아닌가. 물론 나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집단에 들어갔으므로 구원을 꼭 받아야겠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그런 바람 자체도 그리스도께서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명제에 대해 마사이케 진 선생은 이렇게 답을 제시한다.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선택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가?

과연 나는 선택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괴로웠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예정이라는 건 삼위일체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리석은 뇌로는 완전한 이해할 수 없다. 그 일을 어떻게든 이론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대체 시간이란 게 무엇인지, 무한의 과거나 무한의 미래가 무엇인지조차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시간이라는 게 흐르고 흘러 오늘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진리도 나도 모르게 체득하였다. 하나님의 예정이 사실이며, 변치 않을 것이다.

어쨌든 예정의 진실은 구원받았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더욱 확신에 서게 한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게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서운 박해에도 견딜 수 있었다. 나 역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하나님의 예정, 곧 부르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구원이 자신의 노력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정하신 일

4) 마사이케 진(政池仁) 저작집 6권, 375쪽.

이어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배고픔이나 헐벗음, 위험한 상황도 무력도, 하물며 천사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 예정의 교의는 그래서 문자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지지해주는 진리가 된다.

3. 맺으며

나는 오늘의 공부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아니 내가 무엇이길래?”

이 물음이 절로 나오는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나를 자신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보통 사람에게 이 예정이라는 교의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운명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이니 마구 살아도 된다는 말이나고까지 비아냥 거린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마구 살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감사하며, 가르쳐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안전하게 보장되지만,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잘 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예정된 자녀라면, 나는 그 무엇에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내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지옥이나 다른 권세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두가 나를 반대하여 일어서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안고 그 길을 걸어나가리라 다짐한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고린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다짐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뿐 아니라 천사들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2-3)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딸이니 천사보다 더한 자리에 있다. 천사가 예수의 수종을 들 듯이 우리를 수발하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된 적이 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때였다. 우리를 대신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를 외치던 그 순간이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 주셨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생각하며 부르는지 잠시 멈추어서 묵상해 보자.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8:14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자녀로 미리 예정해 주셨다. 나 자신이 바로 그렇게 귀한 존재이다. 나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올리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으랴!

바울 사도 소전(小傳) 7

최 정 일

1.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여행

(1)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의연금을 예루살렘의 장로들(그 지도자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전달했는데 그 때 야고보는 바울 사도에게 「당신은 수천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그들은 성령강림제를 지내기 위하여 매일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있는데)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그들은 당신을 온 세계의 유대인에게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율법의 치명적 적으로 간주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거짓으로라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의식(儀式)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2) 즉 「나지르인 서약을 한 유대인 몇 사람과 함께 그 의식을 치르고 그 모든 경비도 바울 사도가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로이쓰는 이 문제에 대하여 1) 누가 바울 사도의 순수한 영성을 깊이 이해할 수 없어서 <사도행전>의 관련 기사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거나 또는 2) 바울 사도를 단지 연극만 한 사람으로 비난해야 한다는 딜렘마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3)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때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타협을 끝까지 지킨 것일 뿐이다. 즉 그 타협은 이렇다:

1)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모세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않으나 2)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모세율법의 준수도 허용한다는 것이다(다만 실제로는 모세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든 율법주의 구원관은 폐기되지만).

(4) [고전 9:20-22]에는 이렇게 있다:

「(20절) 내가 유대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되

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21절) 나는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22절) 이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외적 의식(儀式)에는 무관심했지만, 사랑의 봉사를 위하여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었다. 바울 사도가 종종 외적 의식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바울 사도가 단지 외적 의식에 대한 광신적(또는 열광적) 반대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5) 바울 사도는 동포인 유다인의 양심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시간에 맡겼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그 해방을 서두르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다인에 있어서의 모세율법의 치명적 파괴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대할 수 있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체포와 투옥이 뒤따른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생애의 마지막 기간들이다.

2. 체포와 투옥

(1) 예루살렘에서의 투옥과 심문 뒤에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케사레아=카이사리아)로 옮겨져서 펠릭스(벨릭스)총독에 의하여 석방될 것을 헛되이 기다리면서 만 2년을 보냈다. 기원 60년에 총독 펠릭스는 해임되고 같은 해 또는 아마도 더욱 더 그 다음 해인 기원 61년에 펠릭스의 후계자인 페스투스(베스도)가 도착한다.

(2) 바울 사도는 페스투스 총독 앞에 나타나서 속주(屬州)의 재판을 종료시키고 황제(제국)의 재판을 청구한다(상소한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의 권리였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의 로마로의 출발은 총

독 페스투스가 도착한 해(기원 61년)의 가을에 있게 된다. 바울 사도의 항해는 조난으로 몰타 섬[Malta: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에 가까이 있는 작은 섬]에서 지연되고 기원 61년의 겨울을 거기서 보낸다. 바울 사도는 기원 62년 봄까지는 로마에 도착할 수 없었다. [독일 루터성경에 의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은 기원 62년에 있었음]

(3)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행 28:30-31]에는 이렇게 있다:

「(30절) 바울은 셋집을 얻어 거기서 만 이 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모두 맞아들이고 (31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2년간 수인(囚人)으로 있으면서도 많은 행동의 자유를 누린 것을 알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여기저기 돌아다닌 동료 사역자들을 맞아들여서 그곳 에클레시아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고 답례로서 바울 사도의 편지들[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을 들려 보냈다.

(4) 여기서 복음사가 누가의 기록은 갑자기 끝난다. 이 때부터 우리는 1) 매우 혼돈스런 성격의 고대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전통과 2) 그보다 더 불확실한 추측들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5) 여기서 그 후의 바울 사도의 역사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나온다:

1)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처럼 기원 64년 8월에 네로 황제의 박해때 순교했다는 설과 2) [행 28:30]에 나오듯 만 이 년 동안의 연금 상태가 끝난 후 석방되어서 ① 빌레몬(골로새)과 빌립보 에클레시아를 방문하고 나서 ② 바울 사도의 최종적 전도 목적지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설이 대립된다.

(6) [문 22]에는 이렇게 있다:

「내가 들 방도 하나 마련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을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것 같다. 오네시모가 티키코스¹와 더불어 골로새로 돌아간 사실은 골 4:7-9], <빌레몬서>가 <골로새서>와 같은 날짜에 써졌다고 가정하게 한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로 에베소에서 200Km 떨어져 있었다. 골로새 에클레시아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제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9장] 그 제자인 에파프라스에 의하여 세워졌다[골 1:7; 골 4:13]. 골로새의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교도 출신이었다[골 1:21-27]. 골로새서는 아마도 에베소에서 기원 55년과 57년 사이에(사도행전 19장) 빌립보서를 쓸 때 함께 에베소의 감옥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7) [빌 2:23-24]에는 이렇게 있다:

「(23절) 내가 형편이 되면 곧 디모데를 보낼 생각입니다. (24절)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도 곧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8) 만일 목회서간[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이 진실로 바울 사도의 저작들이라면 이것들은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 마지막 시기의 불후의 저작들일 것이다. 왜냐면 목회서간은 아무리 보아도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로마 연금시대 이전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 가톨릭 주해성서>에서는 목회서간이 바울 사도의 저작은 아니고 초대교회의 제3세대 그리스도 신자들에 의하여 기원 1세기 말 내지 기원 2세기 초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9) 우리가 위 (5)에서의 제2설의 입장을 만일 취한다면 바울 사도는 이 베리아 반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도인 로마로 압송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어느 스페인의 에클레시아도 「자신이 바울 사도에 의하여 직접 세워졌다」라는 명예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는 이 경우,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투옥의 증언이 될 것이고 그러면 바울 사도의 순교는 카이우스 장로[기원 2세기의 인물]의 증언에 따르면 기원 66년 또는 기원 67년에 일어난 것이 된다.

*한국 가톨릭 주해성서에서는 디모데후서가 기원 67년경 로마에서 투옥된 때에 바울 사도에 의해 쓰였다고 본다. 이때 바울 사도의 조건은 집안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때[행 28:16]와는 사뭇 달랐고 버림받았다는 고독감과 몰이해와 고문과 곧 집행될 사형(=순교) 앞에서 순교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어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고통, 체험, 최선의 싸움을 다했다는 위로, 의의 화관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을 다짐하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말고 복음을 더 온전히 선포하라」고 권면하고 마지막 때에 등장해 거짓 가르침을 주장할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조심하고 깨어 있으면서 한결같이 자신처럼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쓰고 있다]

(10) 바울 사도의 순교 시기가 기원 66년 또는 기원 67년(네로 황제의 재위 기간은 기원 54-68년)이라는 것은 유세비우스(기원 300년경)도 증언한다. [독일 루터성경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순교는 기원 64년에 있었다고 함]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는 기원 260년-기원 340년경의 사람으로 <에클레시아의 역사>를 쓴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학자이고 이 책은 기원 324년까지의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의 주요 사건들의 기록이다.

(11) 우리는 바울 사도의 생애의 연대기를 확정함에 있어 확실한 두 시점을 가지고 있다:

1) 헤롯 아그리빠 1세[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그의 재위 기간은 기원 37년-44년이고, 헤롯 안티파스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4년-기원 39년 임]의 사망시점의 바나바와의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사도행전 12장]은 기원 44년이다(제1차 전도여행전)[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은 기원 43년 또는 기원 44년으로 봄]

[행 12:23-25]에는 이렇게 있다:

「(23절) 헤롯 아그리빠1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헤롯 아그리빠1세를 쳤다 이리하여 그는 죽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마르코(=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2) 총독 페스투스가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후 페스투스 앞에 선 바울 사도[사도행전 25장]: 기원 61년 또는 기원 60년

[행 24:27]에는 이렇게 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펠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페스투스가 부임했다」

[행 25:6-12]에는 이렇게 있다:

「페스투스는 예루살렘에서 8일인가 10일인가 지낸 뒤에 가이사리아로 가서 그 다음 날 법정을 열고 바울을 데려오게 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가지가지 중한 죄목을 들어 고발했으나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바울이 “나는 지금 카이사르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합니다”하고 대답하자 페스투스는 배석판사들과 협의하고 나서 “그대가 카이사르에게 상소했으니 그대를 카이사르에게 보내겠다”하고 말했다」

*독일 루터성경에 의하면, 펠릭스 총독의 재임 기간은 기원 52년-60년 이고, 페스투스 총독의 재임기간은 기원 60년 중 수 개월임.

(12) 이제 우리는 이 확정된 두 시점에 의하여 바울 사도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의 대략의 일자들을 말해 보자!

페스투스는 그가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해에 죽었다. 따라서 기원 62년의 유월절 전이다.

*유월절: 유대교에서는 니산달[대략 3월과 4월에 걸친다] 제14일로 시작해서 8일간 계속되며 출애굽을 기념한다. 또한 페사흐[Pasach]로도 불린다. 히브리어인 페사의 번역어이다.

(13) 바울 사도의 체포는 기원 59년 봄[독일 루터성경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및 가이사랴에서의 투옥기간은 기원 57년-60년임]에 있었다. 바울 사도의 제3차 전도 여행은 그 체포 직전까지 있었고 바울 사도의 3년간에 걸친 에베소 체류 기간이 그 안에 포함된다. [행 19:1-10]에는 이렇게 있다:

「(1절) 바울은 북부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다. (8절) 바울은 3개월동안 회당을 드나들며 담대하게 증언했다. (10절) 이렇게 2년을 계속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행 20:17-31]에는 이렇게 있다:

「(17절) 밀레도스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그 에클레시아 원로들을 불렀다. (18절) 원로들이 오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31절)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시오”」

(14) 그동안 바울 사도는 수다하게 그리스로 여행한다. 거기에 우리가 바울 사도의 아가야 체류[행 20:3]와 예루살렘에의 마지막 여행까지 제3차 전도 여행에 다 포함시키한다면 결국 바울 사도의 제3차 전도 여행의 개시 시기는 기원 54년 가을로 된다.[독일 루터성경에 의하면, 제3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기원 52년-56년임]

(15)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제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기원 48년-52년임]은 (소아시아와) 그리스가 중심이고 그 한 가운데 고린도[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아가야 속주의 총독인 갈리오를 만난 해는 기원 51년 또는 기원 52년임]가 있는데 그 여행 기간은 2년 이상이었다. 왜냐면 사도행전에서 [행 18:11-18] 바울 사도의 고린도 체류 기간을 18개월 내지 20개월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은 기원 52년부터 기원 54년까지의

2년여의 기간에 걸친다.

(16)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제2차 전도 여행 직전에 있었으므로 기원 52년 초 내지 기원 51년 말 무렵[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기원 48년에 있었음]에 있었다.

(17)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기원 45년-47년임]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특히 키프로스과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 중심이었고 그 전후로 두 번 시리아의 안디옥에 체류한다. 그 여행 시기는 기원 51년 말 이전의 수년간일 것이다.

(18)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온 해가 기원 44년이고, 이 해에 헤롯 아그리빠가 사망했고 또 다가오는 기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파견되었다.

(19)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다소로 가기 전에 아마도 수 년간[3-4년 정도] 바울은 다소에 머물렀을 것이다.

(20) 그리고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점은 기원 40년[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기원 35년경임]이다.

(21)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전에 그는 아라비아로 여행했고 그 전후에 두 번 다마스쿠스에 체류했는데 그 기간은 전체 약 3년 정도이다. [갈 1:17-18]에는 이렇게 있다:

「나는 곧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22) 따라서 바울 사도의 회심 시점은 기원 37년경[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회심 사건은 기원 32년경임]이다. 이 때의 바울 사도의 나이는 적어도 30세이다.

(23) 따라서 바울 사도의 출생 시점은 기원 7년[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

면, 주 예수의 출생 시점은 기원전 7년-기원전 4년이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30년-기원 4년임이 되고 바울 사도가 기원 67년에 순교했다면 바울 사도의 지상 생애의 기간은 60년 정도[만 60세에 순교]이다.

3. 일반 역사가들의 기록과의 비교

(1) 빌라도 총독[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그 재임 기간은 기원 26년-36년임]은 기원 36년에 해임된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회심과 깊이 관련된 <스테반의 순교사건>[이는 기원 30년경-기원 32년경 사이에 있었음을 잘 설명해 준다. 즉 사형 판결의 권리는 예수의 처형[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이는 기원 30년경 있었고, 세례자 요한의 출현은 기원 28년경이며,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위 기간은 기원 14년-37년이고, 가아바의 유다 대제사장 재임 시기는 기원 18년-36년 동안이며, 안나스의 유다 대제사장 재임 시기는 기원 6년-15년 동안임] 이전에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하여 유다인들로부터 박탈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로마의 유다 총독이 부임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유다인들이 스테판의 사형 판결과 집행을 감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테판의 순교는 기원 36년에 있었고 그것은 빌라도 총독이 해임되고 그 후임자가 오기 전의 공백기간이었음에 틀림없다.

(2) 이 비슷한 사례를 유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설명하는데 기원 62년에 대제사장 야나니아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를 사형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하는데 이 때도 「페스트스 총독이 죽고 그 후임자인 알비누스가 아직 부임하기 전의 공백시기」이다.

[*요세푸스[기원 37년-100년]: 유다의 장군이자 역사가이다. 로마에 대한 유다 봉기[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봉기는 기원 66년에 발발했고, 기원 7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파괴되었으며, 기원 73년에 최후의 요새 마사

다가 함락되었고, 베스파시안 황제의 재위 시기는 기원 69년-79년임. 그 뒤 바르-코크바의 봉기는 기원 132년-135년 동안 있었으나 실패함에 참가했다. 그의 저서 <유다 전쟁사>는 마사다 포위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다]

(3)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예루살렘 여행>은 임박한 기근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헤롯 아그리빠의 사망시기인 기원 44년이다. 그런데 역사가 아가부스는 「이 대기근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통치시기인 기원 45년 또는 기원 46년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시간계산과 일치한다.[클라우디우스 칙령(=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은 기원 49년에 발표됨]

[*클라우디우스 1세:재위 기간은 기원 41년-기원 54년이다. 칼리굴라 황제(그 재위 기간은 기원 37년-41년임)의 후임자이고 아들인 네로(그 재위기간은 기원 54-68년이고 로마의 대화재와 그에 따른 그리스도 신자 대박해는 기원 64년에 있었음)의 전임 황제이다]

[행 11:27-30]에는 이렇게 있다:

「(27절)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28절) 그들 가운데 하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어나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과연 이 기근은 클라우디오(=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29절) 그래서 성도들은 각각 힘 닿는 대로 헌금해 유다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로 했다. (30절) 이렇게 헌금한 것을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거쳐 에클레시아 원로들에게 보냈다」

[행 12:23-25]에는 이렇게 있다:

「(23절)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천사가 그를 내리쳐 죽였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마치고 마르코(=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4) 바울 사도는 [갈 2:1]에서 그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한 것은 그의 회심 이후 14년째 되는 해에 있었다<사도행전 15장>고 한다. 우리가

본 대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기원 51년에 개최되었다면 그것은 실제로 바울 사도의 회심한 해인 기원 37년부터 14년째 되는 해이다.

[갈 2:1]에는 이렇게 있다:

「그리고 14년 뒤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참석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행 15:1-4]에는 이렇게 있다:

「(1절) 그 무렵 유다에서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명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다. (2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와 이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결국 에클레시아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다른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게 했다. (4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과 원로들을 비롯한 온 에클레시아의 환영을 받았다」

(5)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한 것(=제2차 전도여행 중)은 기원 52년 인데 그 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인 아퀼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를 만난대행 18:1]. 이들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한다!」는 기원 49년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이탈리아에서 고린도에 온 것이다.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로마 역사가들의 여러 사료(史料)들은 그 칙령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재위[기원 41년-54년] 말년에 발령되었다고 한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기원 54년에 사망했으니 우리의 연대계산과 거의 조화를 이룬다.

(6)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체재한 마지막 무렵[제2차 전도여행 중] 바울은 아가야의 지방총독인 갈리오의 재판을 받았다. 이 지방총독은 철학자인 세네카의 친형제이었다. 갈리오는 기원 51년에 집정관이었고 그 바로 뒤에 아가야의 지방총독이 된 것이니 우리의 연대계산과 일치한다.

[행 18:2]에는 이렇게 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본도[=폰투스] 출신인 아퀼라라는 유다인을 만났다. 아퀼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자기 아내 브리스킬라를 데리고 이탈리아를 떠나 온 사람이었다」

(7) 요세푸스는 「펠릭스가 유다 총독이었을 때 [그 재임기간은 기원 52년-60년임]이집트인 하나가 수천 명의 유다인을 선동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한 일이 있다. 펠릭스가 이를 괴멸시켰으나 그 주동자인 이집트인은 도주했다」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군 파견대장이 바울 사도를 보고 그 주동자 이집트인이 아닌지」 의심하는 기사가 있다 [행 21:38]. 아마도 그 때가 이 도주한 주동자가 새로운 반란을 계획한 때였을 것이므로 요세푸스의 기술과 <사도행전>의 기사는 일치한다.

[행 21:31-38]에는 이렇게 있다:

「(31절) 예루살렘 성 안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군 파견대장의 귀에 들어갔다. (32절) 그래서 그는 즉시 군인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33절) 파견대장은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 그가 누구인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았다. (34절) 파견대장은 바울을 병영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37절) 병영문 앞까지 끌려간 바울은 파견대장을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파견대장은 “당신은 그리스말을 할 줄 아오? (38절) 그렇다면 당신이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객 4천 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이집트인이 아니오?”하고 반문했다」

(8) 이제 우리가 본 바울 사도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다시 되풀이해서 요약해 보자:

- 1) 기원 7-37년: 사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 2) 기원 37-44년: 바울 사도는 사도직 수행의 준비를 한다.

3) 기원 44-51년: <제1차 전도여행>과 <2차에 걸친 안디옥 체류>와 <예루살렘 사도회의>

4) 기원 52-54년: <제2차 전도여행>- 그리스 지역에 에클레시아들을 세우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집필

5) 기원 54-59년: <제3차 전도여행>과 에베소 체류와 그리스 에클레시아들의 방문과 예루살렘 방문, <4개의 주요편지들>[=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집필

6) 기원 59년 여름-기원 61년 가을: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에서의 체포>와 <카이사리아에서의 투옥>

7) 기원 61년 가을-62년 봄: <로마로의 이송(여행)>과 <난파,조난>과 <로마 도착>

8) 기원 62년 봄-64년 봄: <로마에서의 연금>,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의 집필

9) 기원 64년 봄-66년 또는 67년까지:<석방>과 <두 번째 로마에서의 투옥>, <순교>, [목회서신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집필

(9) 바울 사도와 같은 <특별한 예외적 사도직>과 <통상적 사도직>을 어떻게 비교·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아브라함 안에 세워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 인류>에게로 나아갈 때가 왔다. 이 <유례없는 종교적 혁명>의 방식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역사를 가지고 온 인류에게 정말로 기쁘게 구원의 완성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이 사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어졌고 예수님은 특별히 12사도를 택하셔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들로 정하셨고 바울 사도를 택하셔서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 정하셨습니다.

(10) 이 사명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왕관과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민의 특권을 버리기보다는 인류의 구세주를 거부하

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명을 구원받기를 원하였으나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도구를 부르셔서 특별한 사도직을 주셨다. 바울 사도는 1)가롯 유다를 대신한 사도도 아니고[2사도는 너무 성급하게 이 대체를 행한다:사도행전 2장] 2)<사도행전>12장에 나오는 순교한 세배대의 아들인 야고보를 대신하는 사도도 아니다.

(11) [행 1:15-26]에는 이렇게 있다:

「어느 날 성도가 모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잡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가롯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정녕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오시는 동안 줄곧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 우리와 더불어 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마티아가 뽑혀서 열 한 사도와 같이 사도직을 맡게 되었다」

[행 12:1-2]에는 이렇게 있다:

「(1절) 이 무렵 헤롯 아그리빠 왕이 에클레시아의 어떤 사람들에게 박해의 손을 뻗쳐 (2절) 우선 요한의 형 야고보를 잘라 죽였다」

*독일 루터 성경에 의하면, 야고보의 살해는 기원 43년 또는 44년에 있었음.

(12) 바울 사도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 신자의 대표가 되어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사명을 홀로 수행한다. 그의 부르심의 시간은 두 순교자 즉 스테판[스테판의 순교는 기원 30년경-기원 32년경 사이에 있었음]과 야고보의 피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진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명백히 거부했을 때 다가왔다.

(13) 바울 사도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짝을 이룰 만큼 중요하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받은 자질은 그 사명이 특별한

만큼 특별한 자질이였다. 그는 내적, 명상적 집중의 힘이 특출하면서도 에클레시아의 가장 섬세한 관리자로서 실제 활동에서도 뛰어났다. [고전 14:26]에는 이렇게 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언어(=방언)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모든 것은 에클레시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후 12:1-4]에도 이렇게 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비로운 영상과 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신자 하나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붙들려 올라갔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14) 바울 사도는

1) 논리적 엄격성과

2)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한 마디로 바울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위한 특별한 사람이였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그 은혜 영원까지

(시편 136편)

한 정 주

제 136편(개역한글)

-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2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3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4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6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8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1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4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5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6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21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23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 24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 톨슨성경

이 시는 여호와와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후렴을 갖는다(‘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 <호2:19>). 또 이 시는 감사에의 초대(1-3절)로 시작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큰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이며(4-9절), 당신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 내셔서 가나안에 들이셨기 때문이고(10-22절),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자비로움 때문이다(23-25절). 이 시는 다시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끝맺고 있다(26절). 또 이 시는 예배 시, 서로 번갈아가며 낭송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유대교의 의식에서 이것은 위대한 할렐이라고 불려졌다.

◎ 헤세드(인애, 인자)

구약에서 약 250회 가량 언급된다. 그 뜻은 충성, 견고, 또는 신실한 사랑 등을 가리킨다. 특히 ‘사랑의 관계’에 관련된 개념들을 강조한다.

136:1-3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3가지 명칭, 즉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여호와’(히, 예호와),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뜻의 ‘하나님’(히, 엘로힘), ‘구원자’라는 뜻의 ‘주’(히, 아도나이)를 사용하였다.

136:19 아모리인의 왕 시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모리 족을 다스리던 왕이다. 그는 모압인을 구축(驅逐)하고 그 땅을 점령했으며, 미디안의 5족도 부속하였다. 그가 통치한 지역은 요단강과 압복강과 아르논 강 중간이었다.(사11:22)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경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으며 야하스에서 패하였다(민21:21-24, 신2:26-36). 그의 땅은 바산 왕 옥의 땅과 더불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분배되었다(신29:8, 수12:6, 13:15).

◎ 구축(驅逐)-어떤 세력이나 해로운 것 따위를 몰아 쫓아냄.

136:20 바산 왕 옥. 요단강 동편에 있는 바산의 왕이다. 그는 60여 성읍을 통치하였으나(신3:11, 수13:12) 에드레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함으로써 멸망하였다. 그의 영토는 시온의 영토와 같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분배되었다(민21:33-35, 수13:32-33, 신1:4, 3:1-13).

2. 그랜드 종합주석, 제 2 할렐시, 대 할렐시

저자 미상이며 특정한 배경이 없는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이다.

본시는 제 1 할렐시((제113-118편)나 제 3 할렐시(제146-150편) 시편들과 같이 그 서두나 말미에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시를 가리켜 제 2 할렐시 또는 대 할렐시 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적으로 유대인 전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즉 본시는 주로 이스라엘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예배 시에 사용되었던 시로서 총 26절로 되어 있으며 각절 끝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첨가되어 있는 매우 독

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시는 예배 시에 성가를 지휘하는 아삽 자손이 본시 각 절의 전반부를 선창하면 회중이 후렴구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부르는 찬양에 사용하기가 용이했다. 내용상으로 볼 때도 본시는 선민(選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절대성과 창조자로서의 권능과 위엄, 구속자로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절대 능력과 은총 등 여호와 하나님의 전존재를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어떤 찬양 시나 감사 예배시보다 장엄하고 힘이 넘치는 시이다.

더욱이 후렴구로 26번이나 반복되는 ‘여호와와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은 표면적으로는 지루한 감을 줄 것처럼 생각되나 실상 많은 회중이 한 자리에 모여 이를 반복적으로 합창할 때에 회중들의 우렁차고 힘 있는 합창소리와 함께 한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다양한 측면들을 한 절씩 부를 때마다 매우 드라마틱한 감격을 가슴 속에서 복받쳐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 할렐루야(히브리어, Hallelujah)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 히브리어로 ‘찬양’을 뜻하는 ‘할렐’에 명령형을 뜻하는 ‘-u’가 붙어서 ‘할렐루’=‘찬양하라’가 된다. ‘야’는 ‘야하웨 즉 하나님’이다.

136:1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헤세드)는 본래윗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136:16 그 백성을…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 ‘광야’는 황폐하고 불가능과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척박한 장소로 그곳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거주할 처소도 보장되지 않는 삭막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식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출16:4-15), 또 반석을 터트려 물을 주심은 물론(출17:1-7),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출40:36-38) 추위와 작열하는 태양열과 사막의 온갖 위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

136: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은 ‘영광스런 하나님’이란 의미로, 구약 전체에 22회 사용되었는데 그중 17회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등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저서에서 발견된다(스1:2, 5:11-12, 느1:4-5, 단2:18-19).
(그랜드 종합주석 9 , 895-899쪽)

3. 유희세, 136편 그 은혜 영원까지

- 1 감사하라 아뢰께 그는 선하시고 그 은혜 영원까지
- 2 감사하라 못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 그 은혜 영원까지
- 3 감사하라 못 주들의 주님께 그 은혜 영원까지
- 4 큰 기사를 홀로 행하시는 이에게 그 은혜 영원까지
- 5 지혜로써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그 은혜 영원까지
- 6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그 은혜 영원까지
-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그 은혜 영원까지
- 8 낮을 다스리게 하려고 해를 그 은혜 영원까지
- 9 밤을 다스리게 하려고 달과 별들을. 그 은혜 영원까지

- 10 애굽의 만아들들을 치신 이에게 그 은혜 영원까지
- 11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끌어내신 이에게 그 은혜 영원까지
- 12 강한 손과 퍼신 팔로 그 은혜 영원까지
- 13 홍해를 둘로 가르신 이에게 그 은혜 영원까지
- 14 그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시켜 그 은혜 영원까지
- 15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던져 놓으셨다. 그 은혜 영원까지
- 16 그의 백성에게 광야를 건게 하신 이에게 그 은혜 영원까지
-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그 은혜 영원까지
- 18 그는 죽이셨다. 유명한 왕들을 그 은혜 영원까지
- 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그 은혜 영원까지
- 20 바산의 왕 옥을 그 은혜 영원까지
- 21 그는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 은혜 영원까지
- 22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그 은혜 영원까지
- 23 우리가 비천해졌을 때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 은혜 영원까지
- 24 그는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해방시키셨다. 그 은혜 영원까지
- 25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 은혜 영원까지
- 26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그 은혜 영원까지

이 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고 논쟁도 많은 모양인데 여기서는 세끼네 마사오 선생이 도달한 결론을 따르기로 한다.

이 시는 내용이 도입부(1-3절), 중심부(4-25절), 종결부(26절)로 되어 있다.

26절로 되어 있고 각 절이 2행으로 되어 있고, 후행(後行)은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 영원까지 [계속되도다]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왕국시대의 초기작인 듯, 아마 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3대 명절의 하나인 가을의 수장절 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예배문이 아닐까.

중심부는 4절이 시작이요 25절이 매듭이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 사이에 5-9절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10-24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다. 이 구원의 역사는 다시 ‘출애굽’(10-15절)과 ‘광야의 행진’과 ‘가나안의 토지 취득’(16-22절)과 ‘사사시대 초기’(23-24절)로 나누어진다. 그 첫 절(4절)과 끝 절(25절)을 비교하면

4절. ‘큰 기사를 홀로 하시는 이’는 창조와 구원의 양면에 걸쳐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중심부임을 밝히고 있고,

25절.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지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중심부임을 밝히고 있다.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497-500쪽)

4. 우치무라간조, 시편 제136편 영원한 자애(慈愛)

◎ 자애(慈愛)-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그는 원래부터 선하시다. 전능(全能)하시면서도 전지(全知)하시고, 동시에 또한 전자(全慈)하시면서도 전비(全悲)하셔서, 그 자애로우심에 있어서 절대 무한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제19절부터 제22절까지와 제25절은 일반적으로 후세의 추가로 본다. 이를 삭제해도 전체의 뜻이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한층 더 명료해지는 것 같다. 전편 도합 22절로서, 전편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1-3).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낸다(4-9)

역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낸다(10-18).

나의 체험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낸다(23,24,26).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이 사실을 나타내 보여 준다. 역사상의 사건들도 모두 이 사실을 보여 준다.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룩된 우주와, 사랑의 지도의 기록인 역사와, 사랑의 체험인 나의 생애와, 이 네 가지가 한결같이 증명하여 말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우치무라간조전집 제13권, 설우사, 385-389쪽)

5. 맺으며

이 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성전에 모여 제사장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시이다. 지극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시이다. 이와 같이 나의 인생 여정에도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신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 은혜 영원까지. 할렐루야!

이 글을 마치면서 나는 이 시의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절마다 반복되는 후렴의 ‘그 은혜 영원까지’를 맨 끝의 26절의 후렴에만 넣고, 우치무라간조 선생님의 설명대로 19절에서 22절까지와 25절을 생략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유희세 선생님의 번역으로 옮긴 것이다.

- 1 감사하라 **야웨**께 그는 선하시고
- 2 감사하라 못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께
- 3 감사하라 못 주들의 주님께
- 4 큰 기사를 홀로 행하시는 이에게

5 지혜로써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6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7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8 낮을 다스리게 하려고 해를
9 밤을 다스리게 하려고 달과 별들을.
10 애굽의 만아들을 치신 이에게
11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끌어내신 이에게
12 강한 손과 퍼신 팔로
13 홍해를 둘로 가르신 이에게
14 그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시켜
15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던져 넣으셨다.
16 그의 백성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에게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18 그는 죽이셨다, 유명한 왕들을
23 우리가 비천해졌을 때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24 그는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해방시키셨다.
26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그 은혜 영원까지

예수전(201)

塚本虎二(김 형 철 역)

제209강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누가 23장 27-31절

27 민중과 예수를 위하여 슬피 우는 여자로 이룬 많은 무리가 뒤를 따랐다. 28 예수는 여자들 쪽을 돌아보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좋다. 그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이들을 위하여 울어라. 29 이제라도 곧 사람들이 ‘불임의 여자와 아이를 낳은 일이 없는 태와 젖을 빨린 일이 없는 유방이 부럽다’고 말할 무서운날이 올 터이니까. 30 그때 사람들은 ‘산을 향해서는 “우리들 위에 떨어져 죽여다오”, 언덕을 향해서는 “우리들을 묻어다오” 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31 죄 없는 푸른 나무인 나조차 이같은 곤욕을 당하는 것이다. 하물며 죄로 썩은 마른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께서 형장에 끌려가시는 도중에 전강에서 말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를 대신하여 그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 그를 따라온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다(23:27-31). 사뭇 예수다운 말씀이고 또한 누가가 관심을 가질 듯한 사건인데(주) 나중에 설명하는 것처럼 근간에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이 있다.

(주) 누가를 약소자의 복음이라고 이르는데 특히 당시 사회에서 약소자였던 여자—유대의 기도서에는 남자는 여자로 지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다—에 관한 기사가 많다. 첫 2장에 있는 예수의 탄생기 중의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그밖에 나인성 과부, 예수를 섬긴 부인들 요안나, 수산나 등. 예수의 어머니를 부러워한 이름 없는 여자(11:27-28)등은 누가 특유이다.

27 많은 무리와 “슬피 우는 여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왔다. 군중은 다만 호기심에서 따라온 구경꾼들이었을 것이다. “슬피 운다”라는 것은 가

숨을 치고 큰 소리를 내어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말한다. 죄수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처형 전에 마시게 하는 관습이 있어 (막15:23)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이 이를 떠맡았다는 설이 있는데 이 부인들도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곤란한 것은 협회역에는 빠져있으나 “울다” 앞에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여 이 여자들은 다만 예수를 위해서만 우는 여인의 역을 하고 있고 다른 두 악인을 위한 울음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적으로 예수에게 동정을 가진 부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예수께서 심한 피로와 고통 중에서도 애써 그들에게 말을 건넨신 사실과도 분위기가 조화가 된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울고 있는 자에게 동정에 넘친 훈계를 하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혹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부인들인지도 모른다.

28-31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는 돌아보셨다. 랑게는 “이 여자들의 동정은 우리들의 주께 대하여 그의 가시밭길에 마지막 꽃 한 송이를 뿌렸다”라고 말한다. 실로 어제 밤의 최후의 식사 이래 인심의 잔인무도함과 무정하고 혹독함을 뼈저리게 맛보신 예수는 지금 이 여자들의 동정의 눈물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뜻밖에도 푸른 물이 가득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기쁨을 느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빌라도 앞에서 굳게 다му셨던 그의 입이 풀려 비교적으로 말끔한 최후의 설화를 여기서 하리게 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는 그 여자들을 가리킨 것이고 49에 있는 갈리리에서 따라온 여자들과 구별된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구약성서에 자주 나오며 아가에만도 8회쯤 보인다. 어느 학자는 이 말의 원형은 “여자들”이 아니고 “여자”라는 단수형이고 이 여자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 즉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킨 것으로(주)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비참한 운명의 예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여자들 속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결코 부당하지 않다.

(주) 멜크스 [주해] 2:2490쪽, 웰하우젠.

예수는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주)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것이다라고. “위하여”라고 번역한 전치사는 “에 대하여”, “에 관하여”이다. 나에 대한 것을 그렇게 슬피 울며 동정하여 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왜 필요 없는가 하는 이유는 씌어있지 않으나 다음 절 이하의 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로 보아서 분명하다. 즉 그 여자들에게는 다음에 말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에게는 그것이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게 되는 그에게는 다만 영광의 면류관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 본 역의 “그보다는”의 원어 plēn은 “오히려”의 뜻이다.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울려면 자신들을 위하여 울어라, 고 하시는 뜻이다. 나를 위해서보다 자신들을 위하여, 이다. 10:20에도 같은 말이 있다.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뜻이다.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29-30에 왜 자신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행, 불행이 역전하는 최후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는 자녀를 가진 자, 자녀를 많이 가진 어머니가 행복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으나 그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가 되고 지금까지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자녀가 없던 어머니가 부러움을 받게 된다.(주) “낳은 일이 없는 태와 빨린 일이 없는 유방”은 말할 나위도 없이 아이가 없는 어머니들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호세아9:14에도 있다. 협회역 “날이 이제 곧 온다”는 “날이 올 터이니”로 이유를 나타낸다. 왜 아이 가진 어머니가 불행한가에 대한 이유는 적혀있지 않다. 손발에 거치적거리기 때문이기도 하며(21:23)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어느 독일의 주해자는 이것에 주를 달아 “세계대전을 보라”고 말하였다. 눈물어린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들도 금번의 전쟁을 통하여 같은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사할린이나 만주에서 도망하여 나온 사람들 중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인 자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주) 1:23, 창30:23.

30은 최후의 심판의 날의 무서운 광경을 그리고 있다. 즉 그날에는 사람들이 산에 대고 “우리들 위에 무너져내려다오” 하고 언덕에 대고는 “우리들을 물어다오” 하면서 “말하기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한다. 원어는 “말하기 시작하다”이다. “시작하다”라는 말을 쓴 것은 이같은 애원이 길게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서운 광경을 보느니 차라리 얼른 죽고 싶다는 것이다. 호세아10:8에서 온 말씀이다. 계시록6:15-17에도 권력자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동굴이나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들 위에 무너져 내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겨다오.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말한다. 라고 하였다. 같은 말이지만 이 경우엔 오히려 몸을 숨겨 달라 이고 죽여 달라가 아니다. 누가의 경우에도 똑같이 설명하는 학자도 있으나(차안) 앞에서 말하였듯이 얼른 죽고 싶다고 하는 쪽이 바른 해석일 것이다. 제롬은 “죽음이 닥쳐오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라고 한다.

최후의 31은 왜 이러한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가리킨다. (문두에 “왜냐하면”이 있다.) 죄 없는 예수에 대해서조차 이러하다면 죄 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벌이 내릴 것은 당연하다는 의미이다. “푸른 나무조차 이같은 곤욕을 당하는 것이다. 하물며 마른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속담인 듯싶다. 에스겔서20:47에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태워버릴 것”이라는 구절이 있고 유대의 문헌 중에도 “만약 푸른 나무에 불이 붙는다면 마른 나무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말이 있다.(주) 의미는 잠언11:31에 있는 “만약 바른 자가 이 세상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악한 자와 죄인들은 더더욱 그러하다”와 및 베드로전서4:17-18과 같을 것은 명확하다.

(주) 빌라베크 [주해] 2권 263-264쪽. 시리아 속담에 이것과 반대인 “마른 것(말린 것)을 이처럼 먹어치우면 생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예수를 생나무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마른나무로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시편제1편에서 의인과 죄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로 비유되어 있는 것과 흡사하다. 예수 자신을 자기와 결합되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잘려나간 가지에 비유하셨는데(요 15:4이하)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그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나간 죄 있는 인간들과의 대조는 바로 그와 같다.

이 27-31을 두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구약성서의 예언에서 편집한 초대교회의 설교를 나중에 예수의 말씀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주) 27은 스가랴12:10이하, 28은 조금 모양이 다르지만 예레미야 22:10에서 지은 것, 29는 이사야54:1에서, 30은 명백히 호세아10:8의 인용, 31은 아마도 에스겔20:47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이 아람어 적이라는 것, 29의 “말하다”, 30의 “계속 말하다”를 28의 “울지 마라” “울어라”와 같이 제2인칭으로 고친 이본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축제일에 여자들이 소리 내어 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거나 예수에겐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다거나 하는 이유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

(주) 볼트만 [공관전승서] 37, 64쪽. 티베리우스는 스가랴12:10-14을 근본으로 하여 된 것이라고 말한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불쌍하게 여겨서 슬피 울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위해 우는 여자들을 위하여 우신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사명을 다하시고 죽는 그의 길은 죽음의 행진이 아니고 개선이다. 아무런 두려움도 염려도 없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여자들에게는 최후의 날에 있을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자기들의 운명에 떨어져 울지 않으면 안 된다. 울면서 회개하는 데 아직 마지막 때는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서 울어난 동정심은 마침

내 예수에게서 이 최후의 충고를 끌어냈다.

사람은 모두 보통 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지만 진작 슬피 애통할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이룰테면 긴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목적인 항구에 닿은 사람과 같아서 무사도착을 기뻐하고 축하할 일은 될지언정 아무 슬퍼할 것이 없다. 항해가 일찍 끝나면 끝날수록 보다 많이 기뻐할 이유가 될 것이다. 특히 주를 믿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희망이 있을지언정 무슨 슬퍼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계14:13). 일생동안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에게 오직 의의 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딤후 4:6-8). 그들은 신랑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듯 개선장군이 개선문을 거쳐 지나가듯 죽어가는 것이다. 두려운 것은 슬퍼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죄이다. 제2의 죽음을 낳는 불신의 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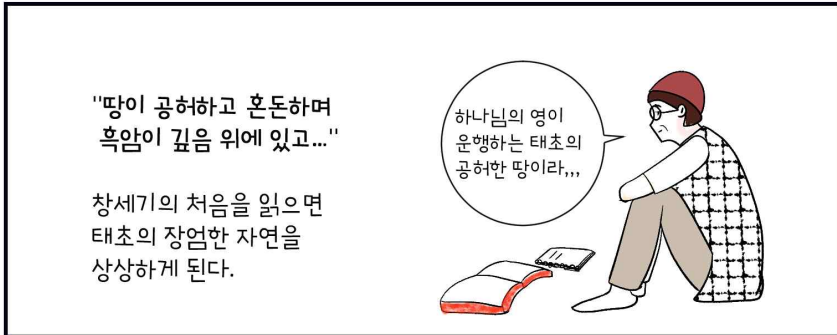
예수의 이 예언은 이 말씀이 있는 후 50년이 채 안 되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실현되었다. 기원 70년 로마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의 참상은 요세푸스의 기사를 보는 자가 전율을 금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마리아라는 한 여자는 로마군의 압박과 식량난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를 죽여 불에 구워먹고, 이 일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가 “죽기를 원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은 모진 목숨을 부지하여 이같은 비참한 몰골을 보고 듣지 않았으니 그만해도 큰 복이라고 하였다”고 요세푸스는 쓰고 있다([전사] 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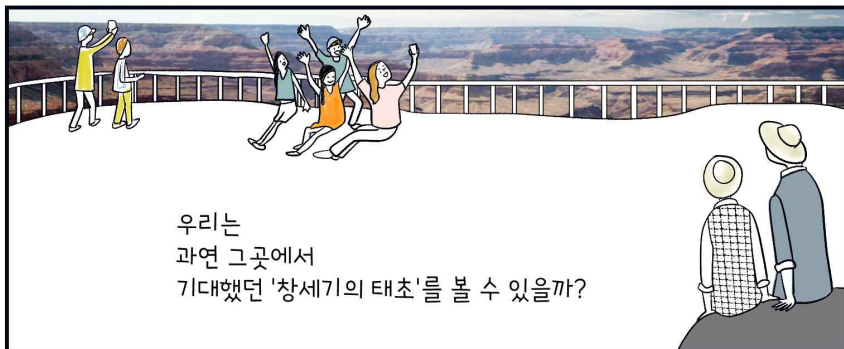
여자들에게 대한 예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는 사람은 많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는 사람은 그 얼마나 적은개!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태초의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1-2)

The Lord`s prayer(주기도문)

최 제 현

노래 Sister Janet Mead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e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e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em who
trespass against us
Forgive us our trespasse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e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Lor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save us from evil And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will be your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e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e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

아놀드 스트랄스(Arnold Strals)가 작사.작곡했고 호주의 수녀 자넷 미드(Janet Mead)가 노래한 “주기도문”은 1973년 발표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2004년에 황금 가스펠상(Golden Gospel Award)를 수상했으며, 한때 한국에서는 거의 국민 팝송처럼 많이 들리던 노래입니다.

자넷 미드는 1938년에 출생했고 피아노와 성악을 공부했고 3옥타브의 음역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주기도문”은 같은 제목의 다른 노래가 많아서 가수 이름으로 찾아야 합니다.

Janet Mead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10대 초반부터 오페라와 뮤지컬 그리고 성가대에서 노래하기 시작했고, 17세 때 Mary Ribera라는 수녀명을 받음으로써 착하고 재능 많은 한 처녀는 총각들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음악과 신앙을 결합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으며, 33세의 나이에 자신의 솔로 경력을 시작하여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앨범 “in the spirit”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꾸밈없고 밝은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감동적으로 해석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다양한 언어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데, 음치인 내가 듣기에도 리베라 수녀의 “주의 기도”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쁜 목소리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Sister Mary Ribera는 음악적 재능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헌신과 겸손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유명하였으며 2022년 8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의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바른 자세로 정성껏 하기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깜박 잊고 잠자리에 기어들었다가 다시 옷을 주어 입어야 했을 때도 있었고, 술 마시고 기도하면서 죄책감을 가져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작은 성의도 없으면 무슨 기도가 될까?

오랜 시간의 갈등 끝에 드디어 얻은 결론은 나와 하나님과의 설정된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먼저이고 기도하는 자세는 그것에 맞추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설정해 놓았으면 목욕재계하고 정성껏 기도할수록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설정해 놓았으면 복장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자주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은 전자레인지 타이머 맞추듯이 그냥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스스로 받아들여지는 관계가 진짜 관계일 것입니다.

(사족: 기독교의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이슬람의 신앙고백, 샤하다(Shahada)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입니다”이며, 정해진 기도문이 없이 하루 5번 의무적으로 드리는 코란 암송 위주인 살라트(Salah)의 시작과 끝에는 탁비르(Takbir) 곧,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친다고 하니 이슬람에서는 함부로 범접치 못할 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 윗분들에게 보고할 일이 많은데, 아나운서가 방송 연습하듯이 하루 종일 중얼거리며 보고 또 보고, 연습을 철저히 한

후 들어가는 직원이 윗분들에게 스마트하다고 평가받더군요.

반면 나는 윗사람에게 준비 없이 보고하다가 순서가 꼬여서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 높으신 분은 점잖게 한마디 하십니다.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저처럼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드릴 때도 역시 횡설수설할 때가 많습니다. 횡설수설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 주신다고 하셔어도 이것은 큰 실례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조리있게 기도하려고 신경 쓰다 보면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전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정리해서 기도를 하지만, 정리 끝에 친구는 역시 옛 친구, 기도는 역시 “주의 기도”로 결론 나는 날이 많습니다. 아마 개신교에서는 나보다 “주기도문”을 많이 드린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톨릭에 속했을 때, 고해성사를 하면 보속(속죄)을 위해 신부님이 가장 많이 주시는 과제가 “주기도문” 열 번 또는 백 번 드리는 것인데, 자랑 같지만 나는 이백 번도 몇 차례 받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중형을 받아야 했는지는 다행스럽게도 기억이 나지 않아 소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에 대해 그만큼 친근감을 느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태복음(6:9-13)과 누가복음(11:2-4)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로서, 언어는 다를지라도 주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순간도 끊임없이 기도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경배와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의하며 시작하는데, 이 호칭이 기독교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경배와 순종이 아닌 의와 사랑으로 서로 하나된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5:18)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라는 구절에서 보듯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칭한다면 큰 불경이 되겠지만, 이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원하시는 관계들이 기도문의 첫머리에 직접 정의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지만,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늘은 끝없이 높은 곳이며 땅을 굽어보는 곳 즉,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art”는 동사로 사용되면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다네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원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 부분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알 수 없었겠지요. 같은 이치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거룩히 빛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자식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행해지는 세상이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내가 인류를 다 사랑할 수는 없어도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 동시에 우리도 마음속의 미움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키우는 노력을 함께 주문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일상에서 구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회사를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월급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인간이 먹고 살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를 위해 밥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모가 혹 밥을 안 줄까 불안해한다면 분명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험한 사막에서 40년이나 지내면서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책임이 이것이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의 책임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식 걱정보다 먼저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먼저 주문하신 것입니다.

신약 4복음에 모두 소개된 예수의 산성 설교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 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 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말씀이 당연히 성립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태복음(18:23-36)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서 어떤 임금이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종이 나가 자기에게 일백 달란트 빚진 동관을 잡아 사정없이 옥에 가둔 것을 임금이 듣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를 다시 옥졸들에게 붙이니라”의 비유가 이를 설명합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것에 이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 영혼을 지켜 주시기를 구함>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從心所欲不踰矩: 종심소욕불유구)” 공자가 나이 칠십을 이야기 한 말입니다. 공자야 고희를 넘겼으니 성욕도 없고, 살만큼 산 나이이며, 자손과 돈과 지위도 다 있어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없으니 당연히 시험에 빠질 일도 없었겠지요.

또 이런 이야기를 대단한 듯 받아 적어주는 제자들까지 있으니 팔자는 고난 노인네입니다. 하지만 생계를 책임진 가장들, 그만 아프고 싶은 환자

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할아버지, 호기심 왕성한 피 끓는 청춘들에게는 각각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있고 욕망과 본능은 버려지지 않으니, 유혹은 나를 괴롭히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또는 시험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하려는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이미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의지라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유혹에 이미 빠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든, 또는 악의 손아귀에 들어 피해자가 되었던 내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다만(But)”이 붙어 있는데 왜 여기에 붙어있을까요? 여기 “다만”은 “악에서 구하소서”를 강조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앞에 드린 기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특히 유혹에 견디려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동시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마음에 사랑을 키워야 하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주문하셨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남을 용서하라 하셨고 특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가지, 죄악에 이미 빠져 자신도 어쩔 수 없을 때는 구원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영광송>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주의 기도”는 자체만으로 완전한 기도인데 끝에 사족처럼 영광송이 붙어 있는 것은 왜일까요? 영광송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중세시대에 주의 기도를 낭독한 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광송”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말하며

“권능”은 주권과 통치권을 실현할 무한한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영광”은 주기도 본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뜻하시고 이루실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영광송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찬미 받으실 것입니다”라는 신앙고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기도에 앞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신 것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주의 기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우리가 해야 할 것과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이 해 주실 것과 바라시는 것이 들어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이 함축된 금과옥조이며 구구절절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담겨있어 이 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역시 하나님이 아니시면 감히 이런 기도를 인간에게 주실 수 없을 것”이라는 감탄과 고마움이 절로 나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쉬운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행복한 세상을 이루도록 해주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이는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이같이 용서하여 주시오며

유혹에 견딜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소서.

아멘!

2024 가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1. 일시 :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2시부터
11월 3일(일) 오후 3시까지 (1박 2일)
2.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길 141 (문당 환경농업 마을)
3. 전화 : 041-631-3537, 010-4591-4438
4. 참가비 : 1) 1인 50,000원
강당 대관료(1만5천원), 교재비(5천원), 식사(3식, 3만원)
2) 숙박을 하시는 분은 20,000원 추가입니다.(3인실 기준)
5.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1) 강의는 원고에 충실해 주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 2) 원고는 늦어도 10월 21일까지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연락처는 뒷표지에 있습니다.)
 - 3) 이번 집회에서 강의해주시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상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철웅 선생님, 진영선 선생님, 장문강 선생님, 조규철 선생님,
배지현 선생님, 조득환 선생님, 반영운 선생님, 손문일 선생님,
3. 감화회에서 나누고 싶은 말도 미리 생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자신의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임이 끝난 후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지요.

【 오류문고 안내 】

오류 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월간 성서신애 제517호 2024년 10월

인	쇄	2024년	10월	1일
발	행	인	손	현
편	집	인	손	현
인	쇄	인	김	진
발	행	소	성	서
신애사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엔피				